

## 회원사동정

### 현대중공업(주)

### 최신 발전설비공장 준공

**현** 대중공업은 경남 울산에 연간 3천MW 규모의 터빈과 4천 MW 규모의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공장을 완공, 지난 11월 5일 이수성 국무총리, 김혁규 경남도지사, 이종훈 한전사장, 정봉구 현대그룹회장, 김정국 현대중공업 사장, 유재환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 사장 등 국내외 관계자들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발전설비 시장이 개방되는 데다 현대가 이날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그간 한국중공업이 독점해 온 국내 발전설비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게 됐다.

현대 울산공장은 4만3천평의 부지에 제관공장 기계가공공장 발전기공장 터빈조립공장 전동기공장 등 5개의 대규모 공장을 갖추고 있다.

현대가 발전설비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지난 '94년 5월 착공한 이 공장 건설에는 총 3500억원이 소요됐다.

현대는 이 공장에서 50MW급 산업용 가스터빈부터 1천3백MW급 대형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용 스팀터빈까지 연간 3천MW 스팀 및 가스터빈과 4천 MW의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500~1300MW급

화력발전소 5기와 1백MW급 가스터빈 발전소 5기를 턴키베이스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최대 1500MW급까지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대의 「고속진공평형시험설비」와 초대형 가공장비인 「플라노 밀러」 등을 갖춰 생산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설계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말부터 부분가동에 들어가 이미 185MW급과 490 MW급 복합화력발전소용 터빈을 제작 중이며 최근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510MW급 LNG복합화력 발전소용 주기의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제2회 전기안전축진대회 개최

**제** 2회 전기안전축진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 손세일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위원장과 전력산업계 관계자 및 각계 인사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기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하고,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인들의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박재운 통상산업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의

수준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온 전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전기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여 국가기간시설인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전기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기설비공사를 담당하는 공사업체나,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전기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전기사용의 안전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유공자 10명과 전기안전작업 공모전에 응모하여 우수작으로 뽑힌 18명의 입상자들에 대하여 사상이 있었다.

### LG전선(주)

### 알루미늄 합금 생산 설비 준공

**LG** 전선(대표 권문구)은 경북 구미 제3공단(인동공장)에 대지 8만3천평, 건평 6천평 규모의 산업용 알루미늄 생산설비를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10월 22일 밝혔다.

총 5백억원을 투자한 이 공장은 용해로 연속주조설비 3300톤급 압출설비 등 주조와 압출·가공공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생산라인과 시험 및

## 회원사동정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다.

LG전선은 지난 '93년 에어슬립 공법을 이용할 알루미늄 주조봉을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한 데 이어 수입에만 의존하던 VCR 헤드드럼용 소재와 자동차용 피스톤로그·에어컨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압축을 요하는 알루미늄사업을 추진해 왔다.

LG전선은 지난해 일본의 후루카와 전기와 알루미늄 압출 및 생산기술에 관한 기술협력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공장가동으로 연간 6만톤 규모의 산업용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알루미늄시장은 판재와 건축용 사시를 포함해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산업용 알루미늄 제품은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LG전선은 '97년 매출 목표를 5백억원, 오는 2000년에는 2천억원 을 계획하고 있어 전망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산업용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도 연간 4천만달러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산업표준화상 수상

**韓** 國電氣工業協同組合(이사장 李龍熙)이 지난 11월 4일 개최된 「제22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표준화상을 수상했다.

電氣組合이 이번에 수상한 산업표준화상은 지난 '77년에 제정됐는데 산업표준화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KS표시품 생산업체 및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산업표준화상은 일반업체에게만 주어져 왔으며 단체가 수상하기는 電氣組合이 처음이다.

이번에 산업표준화상을 수상한 電氣組合은 그동안 공장품질경영등급을 비롯하여 ISO9000 국제품질보증시스템, 단체표준품질인증 등 조합원의 품질활동 활성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표준품질인증은 1백여社에 달하는 조합원업체가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정착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사의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은 물론 조합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조합이 품질을 보장하고 책임을 지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처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李龍熙전기조합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그간 조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품질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모든 조합원사와 직원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 조합원사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요처에 대한 신뢰감도 보다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 추계 자연보호운동 실시

**韓** 國電氣工事協會(회장 박운회)는 지난 10월 19일 도봉산에서 오염된 자연경관을 정비하고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위한 「추계자연보호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추계자연보호운동에는 동협회 임원을 비롯, 본부·계경(인천·경기)지부 직원 50여명이 참가, 도봉산의 각종 오물 및 파손된 휴양시설물을 복원하는 등, 대대적인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연보호활동과 함께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해 실시됐다.

동 협회는 매년 2~3회에 걸쳐 아름다운 국토보호와 점차 환경오염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 노동조합(위원장 문제민)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장흥유원지에서 조합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조합원 단합대회에서는 전국 각 지부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본부·지부간의 업무협조 등에 관하여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고, 21세기를 맞이해

**회원사동정**

협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회원사에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진지한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조합원 단합을 위한 배구대회와 캠프파이어행사를 가져, 조합원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場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문제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부분의 직원이 조합원인 만큼 조합원 스스로가 품위와 자질을 높여 21세기 협회발전에 책임을 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기연행정실장은 「정당한 경로를 통한 정당한 건의는 바람직하며 여직원의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현재 규정을 개정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입직원 환영회와 노동조합보 「협회비전 21」의 재발간 기념행사도 가졌다.

**LG산전(주)**

**전동공구 중국 수출 가속화**

**LG** 産電(代表 : 李鍾秀)의 전 동공구사업이 오는 2000년까지 중국지역의 매출목표를 US\$ 1억으로 설정하는 등 중국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시장공략을 위한 계획수립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LG산전은 US\$ 5.2억('97년 예상 시장규모)에 이르는

중국지역 전동공구 시장공략을 위하여 오는 '97년을 현지화 완성의 해로 정하고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 서비스, 광고·판촉 등 모든 부분을 현지화하여 중국시장 공략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중국의 북경, 상해, 광주, 곤명, 성도, 장사, 남경 등 7개 전략 도시에 독자유통망을 구축하고, 독자유통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97년에는 매출목표를 US\$2000만으로 설정했으며 오는 2000년에는 US\$1억의 매출을 달성하여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LG산전은 이러한 계획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지난 8월 중국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공산품 안전관리규격 CCEE마크(일명 長城마크)을 획득한 데 이어 10월에는 수입상품 품질 안전관리규격마크 CCIB마크를 획득해 명실상부한 중국수출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수출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LG산전은 그동안 홍콩의 판매상을 통하여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현지의 판매상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지밀착형 경영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LG산전은 중국시장 공략의 전략제품으로 고속절단기와 드릴, 100mm 디스크그라인더, 스톤커터 등 4개 제품을 선정하고 지난 4월 중경(重慶)전

사회에 참가한데 이어 10월에는 대련(大連)전시회에 참가하여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커다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LG산전이 이들 제품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제품이 중국내 전체 전동공구 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산전은 '범용 릴레이(Relay)'의 유럽 수출을 위해 최근 세계적인 품질 인증기관인 독일 튜프(TÜV)로부터 유럽 제품규격인 CE(Conformite Europeenne)마크를 획득했다.

이번 CE마크 획득으로 LG산전은 '범용 릴레이(Relay)'의 단품 수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 공략을 서두르는 국내 공작기계업체에 납품이 유리해지는 등 수출과 매출 증대에 밝은 전망을 갖게 됐다.

CE마크는 유럽 각국의 시장보호를 위해 지난 '95년에 의무화된 제품규격으로 이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릴레이(Relay)란 공작기계, 배전반 등 각종 기계류나 전자기기에 부착되어 제어신호를 접점을 통해 끊고 이어주는 기기로 제어의 정확도가 제품 성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시험에서 LG산전의 범용 릴레이는 외부 노이즈(Noise)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 방해파 시험, 전자 감수성 시험 등을 통과해 제품의 정확도를 인정받았다.